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4개사 선정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앞장 2000만원까지 운영 자금 지원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한 4개 기업이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정소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썬다우환경'(대표 이정일) ▲지역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동 기회를 제공하는 '썬다우산업'(대표 문성극)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유아용 제품을 생산하는 '썬다우퍼스트'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4개사
다우환경·엠마우스산업·휴먼퍼스트
행복을나누는커피협동조합

(대표 문선희) 등 3개사와 협동조합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카페 창업 지원 및 공동사업을 추구하는 '행복을나누는커피협동조합'(대표 이해경)을 포함한 총 4개다.

광주는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1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 도시로,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실현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사회적경제 선

도기업 선정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타 시·도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4월에는 참가 기업을 공모하고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터뷰심사 등 3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한 뒤 경영, 판로, 홍보, 품질향상, 네트워크 활동 등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인센티브로 현판 제작,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료 할인, 디자인 상품화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행정 지원을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

센터의 운영선 센터장은 "광주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반영해 선도기업을 선정했다"며 "이번 선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지원계획을 협의하고, 7월 초 인증서 교부와 함께 지원에 들어간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육성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시민총회, 시대요구 담은 축제 돼야"

윤시장 '시민의 날 행사' 평가회

시민의 날 행사는 축제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광주 시민정치 페스티벌이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를 변화시키는 단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2회 시민의 날 행사 평가 회'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이를 간 열린 '시민의 날 행사'는 오랫동안 일태 해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공을 들인 결과물이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총회는 '광주다움'으로 접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시민들은 시민 총회가 축제 성격을 띠면서도 기존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길 열망한다"면서 "대의 정치에서 담지 못한 시대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새 정부와 만나 부서 개편 등은 지방정

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부산, 진주, 성남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시민총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도 주문했다. 먼저 "다음 시민총회까지는 1년여가 남았지만 시에서는 지금부터 '광주발 민주주의', 민주주의 성숙·대중화를 이끌 안을 마련하고 행자부의 관심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광주에서는 어젠다를 던지고 이어 중앙정부와 보훈·보안사항을 논의해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가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95개 동, 마을 단위 정책의 실효조사 ▲광주형 네트워크 구축 ▲제안된 의견 정책 반영 실현 ▲민회지원단 가동·전담기구 설치 ▲시민총회 의견, 시민참여 예산제 반영 ▲5·18 민주열사유가족 명예시민 위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양림동 등 관광부스 설치·운영 ▲행사 TF팀·사무국 연중 상설 운영 등을 제안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수구 쓰레기 주의하세요"

광주시, 장마 침수구역 점검

광주시는 장마철 잦은 호우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간 침수예상지역 하수시설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남구 무등시장 인근, 서구 서석교 주변 등 침수예상지역 16곳과 남구 봉선동 등 위탁·운영중인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2개 지역이다. 침수예상지역에서는 빗물받이, 유입구와 맨홀 등 하수시설물 청소 상태, 배수 흐름을 막는 잔재물 등 침수 피해 유발 요인을 살필 예정이다.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지역에서는 이와 함께 마대, 배수펌프 등 수방자재 준비 상태 점검 대비 사항도 점검한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집중호우 시 하수구 주변 쓰레기로 인해 빗물이 하수관로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며 "쓰레기 투척 금지와 빗물유입에 장애가 되는 하수구 비닐덮개 등을 제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인권도시 광주 배우러 왔어요"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 등 전남대 'KOICA-MBA'(지역공동체 개발지도자 양성 석사학위)과정의 12개국 교육생 20여 명이 '인권도시 광주'의 경험을 배우러 최근 광주시청을 찾았다. 교육생들은 광주시의 역사, 문화, 경제 등 시청 이해의 시간에 인권도시로서 광주시가 추진해 온 인권현장, 인권지표, 인권문화 확산사업 등 다양한 인권행정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직원 110명, 협업 강화 워크숍

광주시는 조직 내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력해 일하는 문화를 뿌리내기 위해 공직자 협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강남 통영 금호마리나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시·자치구·공사공단 관계자 등 지난 3월 광주형 협업과제에 선정된 19개 팀,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 부서 간 협업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조직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달인으로 선정된 참여혁신단 손병희 사무관이 '협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2014년부터 마을정책 업무를 협업해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와 노하우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그룹별 원탁모임에서 그동안 협업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협업행정 강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협업과제를 운영해 온 광주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팀을 구성해 과제를 추진, 시청 전반에 협업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프리젠테이션, 발산창조마을 조성, 마을분쟁해결센터, 마을교육공동체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발비 2억 확보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지자체 공공 빅데이터 분석 표준 플랫폼 개발을 조건으로 정부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산구는 행정자치부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체결했다. 협약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 거점지자체 육성' 공모를 펼쳐 광주 광산구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행정자치부는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중심으로 벌인 광산구의 과학행정 성과

에 주목해 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광산구는 지자체 공공 빅데이터 분석 표준 플랫폼 개발을 7월부터 시작한다.

표준플랫폼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내부 행정망에서 매일 생산하는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전자 지도나 그래프 등 시각 이미지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산구는 빅데이터 분석 표준 플랫폼에 구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능을 대폭 활용할 계획이다. 광산구가 지난 2015년 개발한 GIS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빅데이터 218종을 활용해 산업 현황, 인구 이동, 범죄와 화재 발생 빈도 등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항공기 사고 긴급구조훈련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인근 보라매축구공원에서 민간 항공기 비상착륙으로 인한 기체 파손과 화재 발생을 가정된 '불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대형 모텔, 회사 사정상 매매.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20일 오픈예정
- 동업 하실분 환영!
- 연 순수익 3억정도 가능
- 연수원, 수련원 등 기타시설 이용 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